

금리 경계감 속 혼조 마감, 시선은 24일 미중 정상회담으로

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hyseong@ls-sec.co.kr

금리 불안에 다우·러셀 부진, 반도체·대형기술주는 강세

- 미 증시는 DOW -0.18%, S&P500 +0.17%, NASDAQ +0.34% 혼조. 기술주, 산업재만 상승, 유틸리티, 소재, 통신서비스 등 약세
-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+2.8% 50 일선 돌파. AI 속도조절론 여파를 회복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으나, 쿼드러플위칭데이(주가지수 선물·옵션, 개별주식 파생상품 동시 만기)에 의한 영향도 존재
- 한편, 24 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·희토류·AI 등 주요의제가 다뤄질 전망. 정상회담 만찬에 주요 기술기업 CEO 들이 대거 참석 예정이라 알려져

유가 사흘째 하락... 증시 향방 가를 중동 변수

- 국제유가 하락 WTI \$100.3(-1.6%), Brent \$103.9(-0.9%). 사우디 동서송유관 피해가 우려 대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3 거래일 연속 하락. 다만 주말중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과 미국의 공습 검토 보도
- 데이비드 밀러 카탈리스트펀드 CIO 는 금리인상분을 상쇄할 만큼 경기 성장이 뒷받침되는 한 증시 랠리 지속될 것이라 전망. 다만, 중동분쟁 장기화시 고유가·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길어지고 기술주조자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경고

금리인상 사이클 장기화 우려 속 BOJ 발 엔저·산업생산 부진

- 국채금리 상승 10Y 4.996%(+4.9bp) 2Y 4.743%(+5.3bp). BofA 는 긴축사이클이 2022~23 년 당시 고점인 5.5%까지 되돌아갈 가능성을 제기. 연준이 금융여건이 긴축적으로 바뀔 때까지 인상을 이어나갈 것이며 이에 따라 수익률곡선은 더 평탄해질 것으로 전망
- BOJ 3 개월만에 기준금리 1.25%로 인상했으나, 향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내놓지 않으면서 엔화 약세, 달러인덱스 100.4로 7 주만에 최고치 기록
- 8 월 산업생산 MoM 0.0% 전월·컨센 하회, 올해 첫 감소. 제조업생산 MoM -0.3% 전월·컨센 하회. 내구재 부분 -0.5% 감소, 세부적으로 자동차·부품 -1.2%, 항공우주·기타운송장비 -1.2% 등 전반 부진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SNDK	샌디스크	+11.0%	21일 S&P100 지수 신규 편입에 따른 기관 대량 매수세 유입과 더불어, 인텔(-0.2%) CEO 발언 이후 낸드플래시 수요 기대 회복에 주가 급등. 반면 S&P100 편입 예정인 델(-3.5%), 팔로알토(-3.1%), 아리스타네트웍스(-0.1%) 등은 서버 부품 원가 부담 및 단기 차익 실현 매물에 주가 약세
XENE	제논 파마슈티컬	-30.7%	주요 우울장애 및 양극성 우울증 임상시험 중 이상반응 관찰. 이에 신규 환자 등록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히며 주가 급락
NFLX	넷플릭스	-4.7%	웰스파고가 유저 인게이지먼트 둔화와 대작 오리지널 시리즈 부재를 지적하며 투자의견을 '비중축소'로 하향하고 목표주가를 \$80→\$57로 낮추면서 주가 하락
STLD	스틸 다이내믹스	-4.1%	최근 1년간 미국 철강 가격 강세에도 불구하고, 뉴코어(-6.3%)와 함께 시장 컨센서스를 밑도는 3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동반 약세. 한편 웰스파고는 실적 추정치를 낮추면서도 견조한 FCF 창출력 및 알루미늄 신공장 램프업에 따른 마진 개선 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투자 의견 '비중확대' 유지 및 목표주가를 상향(\$255→\$257) 조정
MSTR	스트래티지	+16.4%	미 SEC가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주식거래를 지원하는 특정 플랫폼에 대한 규제 면제 혜택 승인. 4개월만에 BTC \$8만선 회복에 관련주 강세